

전제 연구의 전제 조건

최 중 열
(전주대학교)

Choi, Choong-Lyeol(1995). **Presuppositions in the study of presupposition.** *Linguistics vol. 3.*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ain presupposition on the basis that our language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our cognitive world. We examine the semantic and pragmatic definitions and show their defects with concrete examples in English. And we inquire into some prerequisites for the proper treatment of presupposition ; cognitive principle, felicity condition and context. With the help of those concepts, the presupposition can be explained well together with its cognitive definition : when A is true in contexts which can be connected to a speaker, a hearer or both of them, B presupposes A if B or the utterance of B is felicitous.

서 론

언어의 기능은 다양하다. 일상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는가 하면 인식 작용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언어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문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과 새로운 내용을 싣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문장은 어색하다. 다음 문장을 보자.

(1) ?? A box is empty.

윗 문장 (1)은 통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지만 의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box'라는 명사앞에 부정관사 'a'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A box'라는 명사구가 가리키는 사실이 기지의 사실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이다. 한편 'is empty.'의 술어 부분이 담고 있는 정보도 또한 새로운 정보이다. 결국 문장 (1)은 새로운 정보를 지니고 있는 언어 표현들

로만 구성되어 있어 의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하여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이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문장은 기지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 기지의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을 전제(presupposition)라고 한다. 따라서 이 전제에 대한 명확하고도 정확한 정의의 제시를 의미론의 중심과제라 할 수 있겠다.

본 론

언어 표현이 지니는 전제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자들 보다는 철학자 또는 논리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근대 철학에 있어서 중심 과제중의 하나는 지시표현과 그에 해당하는 지시체(referent)가 지니는 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일이었다. Frege(1892)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시표현이 갖는 전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2) If anything is asserted, there is always an obvious presupposition that the single or compound proper names used have a reference. If one therefore, asserts "Kepler died in misery.", there is a presupposition that the name 'Kepler' designates something.
(Frege (1985), P. 207)

Frege에 의하면 Kepler가 무엇인가를 지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Kepler died in misery."가 주장하는 의미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된다.

한편 Strawson(1956)은 문장과 진술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Frege와는 달리 전제가 되는 부분의 명제가 거짓이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진술은 진리값을 지닐 수 없다는 진리값의 공백(truth-value gap)개념을 받아들인다. Frege와 마찬가지로 전제 개념을 근거로 하여 문장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문장과 진술의 구별 그리고 진리값의 공백과 같은 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좀 더 발전된 이론 전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Strawson도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 전제의 삭제 현상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1. 언어 학자들의 전제에 대한 정의

철학이나 논리학 분야에서 전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 비로소 언어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Horn(1969), Lakoff(1969), 그리고 Morgan(1969)의 논문들이 발표된 1969년을 그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읽혀지던 Kiparsky & Kiparsky(1971)의 "Fact"가 마침내 발표된 1971년을 꼽을 수 있다. Kiparsky & Kiparsky는 목적어로 보문을 취하는 동사를 사실 동사(factive verb)와 비사실동사(non-factive verb)로 나누고 사실동사의 보문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의 대상이 되어 항상 참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언어표현이 전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몇가지 기준을 제시한다.¹ 그들이 제시한 기준 중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러한 논의가 전제 현상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케 한 공적이 있다.

1.1 의미론적 정의

Frege에서 시작되어 Strawson을 거쳐 Keenan(1971)으로 연결되는 전제에 대한 정의를 의미론적 정의라 한다. 이들은 상황(context)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문장 A가 문장 B를 전제한다면 문장 B가 참이어야만 문장 A가 진리값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제란 문장이 진리값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건인 것이다. 다음 정의를 보자.

(3) S semantically presupposes S' iff :

- a. $S \models S'$ and
- b. $\sim S \not\models S'$.

(Levinson (1983), P. 175)

윗 정의에서 S와 S'는 모두 명제를 형성하는 문장을 지칭하며 \models 는 'entails'를 가리킨다. 그리고 다음의 진지표에 의하여 진리값이 부여된다.

- (4)
- | | |
|---|-----|
| S | S' |
| T | → T |
| * | ← F |
| F | → T |

(4)의 진지표에서 *는 $\sim(T \vee F)$ 를 가리킨다. 이는 ' $\sim T \ \& \ \sim F$ '를 뜻하는 것이기에 전제가 되는 명제 S'의 진리값이 거짓일 때는 이를 전제하는 문장 S의 진리값은 참도 거짓도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S가 문장으로 정립할 수조차 없다.

전제에 대한 이러한 의미론적 정의는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분명한 언어자료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5) a. Who ate the cookies?

- b. Someone ate the cookies.
- c. Who did not eat the cookies?
- d. Someone did not eat the cookies.

(5)는 의문문과 그에 해당하는 전제가 되는 문장을 열거한 것이다. (5.a)는 (5.b)를 전제하고 (5.c)는 (5.d)를 전제한다. 그러나 전제에 대한 정의 (3)에 의하면 (5.a)가 (5.b)를 전제한다고 할 수 없다. 문장 S가 S'을 전제하려면 S와 S'의 부정형인 ~S가 모두 S'을 함의해야 하는데 (5.a)는 (5.b)를 함의하고 있으나 그 부정형인 (5.c)는 (5.b)를 함의하기는커녕 (5.b)와 모순관계에 있는 (5.d)를 함의하고 있다. 결국 전제에 대한 정의 (3)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제에 대한 정의 (3)은 전제의 삭제현상이나 계승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닌다.

1.2 화용론적 정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의미론적 정의를 토대로 한 전제 현상의 설명이 많은 장벽에 부딪치자 Stalnaker (1974), Wilson(1975), Rosenberg(1975), Kempson(1975) 그리고 Boer and Lycan(1976) 등을 중심으로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정의가 활발하게 제시된다. 이들은 모두 적절성(felicity)과 상황(context)이란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1.2.1 적절성

이에 대한 논의는 Austin(1962)으로 부터 시작되어 Searle(1969)에서 한층 깊어진다. Searle에 의하면 문장의 발화가 적절한 언표내적 언어행위(illocutionary speech act)를 구성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예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으로 화자와 청자가 언어 행위와 관련하여 배경이 되는 생각들을 지녀야 하고, 둘째 진지성의 조건(sincerity condition)인데 화자가 언어 행위에 대하여 갖게되는 심리적인 태도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셋째인 기본조건(essential condition)은 언어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말함이다. 이러한 논의가 Sperber and Wilson(1986)의 적절성(relevance)으로 연결되고 있다.

1.2.2. 상황

모든 문장의 진술은 상황과 적절한 관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상황은 우선 세계의 상태로 볼 수 있다.

- (6) By the context of an utterance, I refer those individuals,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speech act, as well as the physical and cultural setting of the speech act.

(Keenan (1971), P.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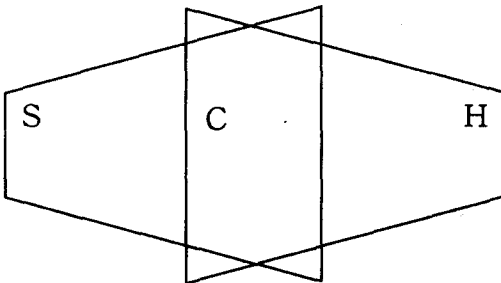
하지만 언어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결코 Keenan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다.² 물론 대화와 같은 언어 행위에 관여할 때 사람들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고 이 믿음의 일부는 언어행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밖으로 들어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Hutchinson (1971)은 다음의 추론형식을 제시한다.

- (7) x says "A" to y as an assertion.
 x believes that B and
 x believes that y believes that B and
 x believes that A and x believes that y is ignorant of A.

(Hutchinson (1971), P. 136)

변항 x와 y는 사람을 나타내고 A는 발화되어진 언어 형태 곧 진술이며 B는 A의 발화를 가능케 한 명제이다. 이때 A가 B를 전제하게 된다. 결국 Hutchinson에 의하면 상황이란 화자 x가 믿고 있으며 동시에 청자 y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x가 믿고 있는 세계의 상태이다.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8)



- S: 화자가 참이라고 믿는 명제 집합.
 H: 청자가 참이라고 믿는 명제 집합.
 C: 화자와 청자가 모두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 집합.

화용론자들은 1.2.1에서 설명한 적절성의 개념과 1.2.2에서 논의한 상황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제를 정의하고 있다.

- (9) An utterance A pragmatically presupposes a proposition B iff A is appropriate if B is mutually known by participants.

(Levinson (1983), P. 205)

하지만 전제에 대한 정의 (9)는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먼저 적절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 중 "mutually known by participants"의 부분이 너무 강하다. 다음 문장 (10.a)를 보자.

- (10) a. I'm sorry I'm late. I'm afraid my car broke down.
b. The speaker has a car.

청자가 (10.b)의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도 화자는 (10.a)의 문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발화 할 수 있다.

한편 (9)의 정의가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모형 (8)도 문제가 있다. 대화가 꼭 S와 H의 교집합인 C를 토대로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대화 (11)을 보자.

- (11) a. A: John is aware that Kim is in Korea.
b. B: Wait a second ! I just saw Kim in the cafeteria.

(11)의 대화를 나눌 때 A와 B 모두 "Kim is in Korea."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A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B가 Kim과 아주 비슷해서 Kim이라고 착각한 사람을 식당에서 본 경우도 있다. 또 A는 Kim이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최근에 돌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Kim은 실제 돌아와서 B가 정말로 Kim을 식당에서 본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다.

2. 인지론적 정의

언어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모든 이론은 이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의 이론들은 이를 소홀히 해왔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2.1 인식의 원리

Kiparsky & Kiparsky(1971)를 시작으로 전제현상을 설명하려는

언어학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가 어떤 동사는 목적어 또는 주어로 취하고 있는 보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Kiparsky & Kiparsky(1971)는 이러한 동사를 사실동사라 했고 이러한 기능을 갖지 않는 동사를 비사실동사라 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문장의 어느 부분이 전제 곧 기지의 사실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 또는 이의 발화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엇을 주장하는가는 그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닌 감각기관이나 인식작용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상황을 인식한다. 우리는 소위 五感を 통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동사들로 표시할 수 있다.

(12) see, hear, touch(:feel), taste and smell.

그리고 이러한 동사들이 주동사로 쓰인 예문으로 다음 문장들을 제시할 수 있다.

- (13) a. John saw that Adam was making a lot of mistakes.
 b. John heard that the footsteps were getting closer.
 c. John felt that the temperature was rapidly decreasing.
 d. John tasted that granules were forming in the mixture.
 e. John smelled that the croissants were getting done.

그런데 특별한 조건들이 없다면 (13)의 문장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14)의 명제들은 모두 참이다. (14)의 문장들에 의하여 표현된 명제들이 기지의 사실이다.

- (14) a. Adam was making a lot of mistakes.
 b. The footsteps were getting closer.
 c. The temperature was rapidly decreasing.
 d. Granules were forming in the mixture.
 e. The croissants were getting done.

이러한 자료들은 (13)의 문장들이 참일 경우에는 (14)의 문장들도 역시 참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14)가 (13)의 전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의 구분에 의하면 다섯개의 동사 중 보문을 전제로 갖게되는 사실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see 하나뿐이고 see도 완전한 사실동사이기 보다는 준사실동사 (semi factive-verb)일 뿐이다. (14)는 (13)의 전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

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원칙을 주장하고자 한다.

(15) 인식의 원칙

감각 또는 인식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참이다.³

2.2 적절성

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정의는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의 중 “mutually known by participants”의 부분이 너무 강하다.

Gazdar(1979)는 전제란 어떤 문장을 발화할 때 그 상황에 함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치(consistent)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함의와 일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6) a. A sentence φ is entailed by a set of sentences \mathcal{I} just in case φ is true in every possible world in which all members of \mathcal{I} are true.
 b. A sentence φ is consistent with a set of sentences \mathcal{I} just in case φ is true in some possible world in which all members of \mathcal{I} are true.

(Gazdar (1979), p.107)

일치에 대한 Gazdar의 정의에 근거하여 전제에 대한 정의 중 “mutually known by participants” 부분을 “상황에 일치하는” 또는 “연결되는 상황에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충분하다.

2.3 상황

1.2.2에서 언급했듯이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정의는 상황을 투명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대화등의 언어활동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투명하지만은 않다. (11)의 대화가 이를 증명한다. 좀더 복잡한 의미구조를 지닌 다음 문장도 이를 용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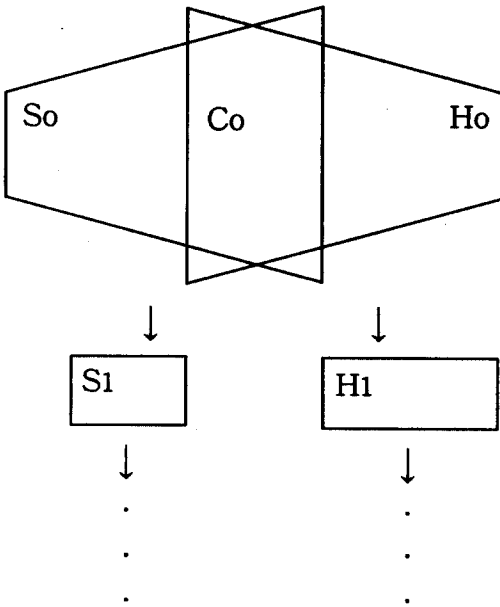
- (17) John is not yet here, and in spite of what you said I don't think he is coming.

문장 (17)의 전반부는 다음 (18)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18)이 문장 (17)의 후반부에서는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문장 (17)이 어색해야할 듯 한데도 전혀 어색한 구석이 없다.

(18) John is coming.

이는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8)에서 제시한 것처럼 화자와 청자 모두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다음처럼 확대되어야 한다.

(19) 4



(19)의 도형에서 So는 화자가 존재하고 있는 실세계에서 참인 명제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Ho는 청자의 경우로 실세계에서 참인 명제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Co는 So와 Ho의 교집합임으로 화자와 청자 모두가 실세계에서 참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들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로써 매우 투명하다. 흔히 말하는 공유된 참의 세계이다. 특별한 조건들이 없을 때 가능한 모든 전제가 모두 참이되는 세계로 보면 된다. 하지만 (8)에서 제의한 상황과는 달리 (19)의 도형에서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있어서 세계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하여 온 세가지의 준비작업을 토대로 하여 전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충분하다.

- (20) 명제 A를 화자나 청자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일 때 문장 B 또는 이의 발화가 적절하면 B는 A를 전제한다.

(20)에서 제시한 전제의 정의는 언어자료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설명적 타당성을 지닌다. 먼저 의미론적 정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 (5)의 자료를 쉽게 설명해낸다.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이 일반적으로 문장이나 발화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 중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보를 구하거나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⁵ (5.a)는 (5.b)를 전제하며 (5.c)는 (5.b)를 전제하고 있음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를 (20)의 정의는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화용론적 정의를 논하면서 언급한 (12)이나 (11)의 자료도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17)의 문장을 중심으로 (20)의 정의가 전제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설명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술하고자 한다.

대화를 진행시켜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불분명했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상황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Gazdar(1979)는 이러한 상황확장의 순서가 다음과 같다고 본다.

- (21) a. The entailments of the uttered sentence S.
 b. The clausal conversational implicatures of S.
 c. The scalar conversational implicatures of S.
 d. The presuppositions of S.

(Gazdar (1979), p. 58-59)

Gazdar가 주장한 (21)의 순서를 받아들이면 문장 (17)의 전반부는 전제로서 (18)을 상황에 덧붙치게 된다. 한편 (17)의 후반부에서는 추의 (implicature) 계승에 있어서 조금 약한 힘을 지닌 think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 (22,a)와 (22,b)를 추의함으로써 이 또한 모두 상황에 덧붙치게 된다.

- (22) a. P (John is coming.)⁶
 b. P ~(John is coming.)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Gazdar의 상황확장순서에 따르면 (22)에서 제시한 명제는 두번째에 속하고 (18)의 명제는 네번째에 속한다. 따라서 (22)의 두명제가 우선 상황에 덧붙여졌다가 (22,b)는 문장 (17)의 전반부의 의미를 해석해내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부의 전제 (18)과 상충되기 때문에 상황으로부터 삭제하고 (22,a)만을 상황에 덧붙여 해석하면 충분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우리가 문장 (17)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언어직관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언어직관에 의하면 문장 (17)의 전반부에서는 (18) 곧 (22,a)의 명제가 참이지만 후반부에서는 거짓이 된다. (22,b)가 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해석을 전제에 대한 정의 (20)은 이룩해낼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상황을 (19)에서 제시한 것처럼 확대하면 충분하다. 화자가 지니는 상황과 청자가 갖는 상황을 분리할 수 있어 화자와 청자가 각각 서로다른 추의 또는 전제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 (17)의 경우에 있어서 절회화추의 P (John is coming.) 과 P~(John is coming.)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참이라고 인정하는 명제가 아니고, 청자는 인정하지 않는데 화자 혼자서 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명제들이다. 더욱이 화자는 두 명제중 P~(John is coming.)이 오히려 옳다고 주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부의 전제 "John is coming."도 청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이 될 수 있지만 화자의 경우에는 부정어 "not"이 "John is (already) here."라는 명제는 부정하고 있으나 전제 "John is coming."에 대해서는 중립적임을 알 수 있다.⁷

따라서 (19)의 상황에 의하면 화자의 경우 절회화추의에 의하여 비롯되는 명제 P~(John is coming.)은 (So-Co)로 표시되는 상황을 형성하는 명제가 되고, 전반부에서 나타나게 된 전제 "John is coming."은 나타나지 않거나 설혹 나타난다 할지라도 (Ho-Co)로 표시되는 상황을 형성하는 명제가 되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자의 경우에도 후반부에서 나타나게 된 절회화추의에 의한 명제는 처음부터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반부에서 비롯된 전제 "John is coming."만을 인정하기에 모순이 발생할 길이 없다. 이는 문장(17)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언어직관이 갖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식에 대한 원칙, 적절성 그리고 상황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토대로 한 전제의 정의 때문이었다.

결 론

언어의 기능이 여러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미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인지세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지세계의 확장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일이다. 따라서 언어가 지닌 의미의 본질은 밝히고 이를 해석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 의미론에 있어서 인지세계확장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기지의 사실 곧 전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식의 속성을 토대로 한 인식의 원칙과 언어행위가 갖는 적절성 그리고 상황에 대한 새로운 모형의 제시를 통하여 전제를 (20)에서처럼 정의했다. 이는 기존의 의미론적 정의나 화용론적 정의가 갖는 결점들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미해석에 대한 새롭고도 적절한 틀의 제시라 할 수 있겠다.

내 용 주

1. Kiparsky & Kiparsky(1971)는 여섯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제현상을 논할 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다음의 하나뿐이다.

Presuppositions are constant under negation.

하지만 위의 기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투명성의 조건으로는 관계의 성질인 reflexivity, transitivity, 그리고 symmetricity 모두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

3. Rosenberg(1975)의 다음 주장과 비교해 보자.

Unless specified otherwise, sensory information is assumed to be correct.

필자는 상황을 근거로 언어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음의 주장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성립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15)의 원칙을 제시했다.

I think that Mr. Choi is handsome.

⇒Mr. Choi is handsome.

4. 참고 최중열 (1992)

5. 화자와 청자가 모두 참으로 믿고 있는 명제들로 이루어진 "shared knowledges"의 세계를 일컫는다.

6. 다음의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Who did that work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When did you do that work?

- * What did who do yesterday?
- * When did who do that work?

물론 의문사가 둘이나 들어있지만 어색하기는 해도 다음 문장은 문법적이다.

Who did what yesterday?

- 7. P는 양상논리학에 있어서의 ◇를 의미한다.
- 8. Horn(1985)이 주장하는 언어외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최중열(1992) *영어의 전제와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Frege, G (1892) "Sense and Reference", In Martinich(1985), p. 81-151.
-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rgan (1975), p. 41-58.
- Hutchinson, L.G. (1971) "Presupposition and Belief Inferences", CLS 7, p. 134-141.
- Keenan, E.L (1971) "Two Kinds of Presupposition in Natural Language" In Fillmore and Langendoen (1971), p. 45-54
- Kiparsky, P. and Kiparsky, C. (1971) "Fact", In Steinberg and Jakobovits(1971), p. 345-369.
- Levinson, S.C. (1983) *Pragma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S. (1975) *Counterfactualives : A Pragmatic Analysis of Presupposition*, University of Illinois Dissertation.
- Stalnaker, R.S. (1979) 'Possible Worlds', In Loux (1979), p. 225-234